

동경소방청에 찾아온 스위스 소방관



스위스 취리히의 소방대원인 에르빈 뷔트머는 도쿄의 한 소방서에서 손님으로 2주간 체류했다. 여태까지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고 그 일본인들이 확인해 주었다. 그는 거기서 무엇을 했고 비슷한 경험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이야기 한다.

한 일본인 소방대원이 우리 소방서를 방문했었는데, 그 때 이 일이 시작되었다. 그는 우리 소방서를 방문할 수 있게 해 주면 자기도 내가 자기네 소방서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를 했었던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었고 또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던 것이다.

한 일본인 여성의 도움으로 나는 동경소방청에 방문을 문의하고 일본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필요 서식에 일본어로 정확하게 기입할 수 있었다. 외국인 방문등록을 위해 동경소방청에 찾아갔을 때 외국인이 소방서에서 체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영광을 얻게 된 데 대하여 나는 카마타 소방서의 서장인 아키라 타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그는 “국제 소방관 우정문화클럽”의 의장이었기 때문이었는지 나를 환대해 주었다.

왜 이 소방서에 방문을 한 것인가?



카마타 소방서는 도쿄에서 가장 큰 가장 최신식의 소방서로서 1997년 11월 7일 처음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 소방서의 관할구역안에 내가 방문하고 싶었던 하네다 공항소방대가 근처에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리타 공항에 내려 하얀 리무진을 타고 카마타 소방서로 갔다. 소방서에 도착을 하자 소방서의 현대식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면의 큰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인상적인 통신실과 지령실은 대단히 컸다.

나는 마치 내가 이전에 여기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현관에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에르빈 뷔트머씨' 라고 써 있는 긴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곧이어 환영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소방서장과 인사를 나눈 뒤 큰 강당으로 안내되었는데, 거기에는 모든 직원들이 모여 있어 나는 매우 놀랐다. 강당의 앞에 놓인 작은 연단에서 나는 그들과 마주보며 일본의 군대식 상견례를 했다. 연단에서 나는 외롭게만 느껴졌다.

이제 내가 인사말을 해야 할 순서가 되었다. 그전에 나는 이런 행사가 있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2시간동안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준비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일본식 의식과 허리를 구부리는 여러 번의 인사는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불안해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영어로 스위스의 애기와 인사를 전하려 노력했다. 소방서측에서는 내가 체류하는 내내 많은 통역여성들을 곳곳에 배치해 주었는데, 그 이유는 극히 일부의 일본 사람들만이 영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카마타 소방서에 있는 한 간부실로 옮길 수 있었다. 그 방안에는 침실과 냉장고 그리

고 텔레비전이 있었다. 나는 언제든지 소방서의 아무 곳이나 갈 수 있었다.

3교대 근무체제

카마타 소방서는 인근의 하네다와 로쿠고 소방대 등의 주요 소방대를 관할하고 있다. 하네다 국제공항의 외곽에는 공항근접소방대가 자리잡고 있다. 이것들은 공항의 사고출동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배치된 소방대이다.

근무는 3교대를 실시하고 있다. 교대근무의 한 조는 최소 25명으로 구성된다. 카마타 소방서에는 하루에 47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여성소방대원도 8명이 있는데, 6명은 일근근무자이고 2명은 교대근무자이다(펌프차 운전원과 구급대원).

구급팀도 마찬가지로 24시간 교대근무체계를 갖고 있다. 도쿄에서 구급이송은 무료이기 때문에 다쳤거나 병자라고 속이는 사람들이 구급차를 택시하고 부르기도 한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택시라고 부릅니다.”라고 한 구급대원이 말했다.

공식적으로 3주에 7번의 근무를 실시하며 이중 16시간만 유급근무시간이다. 주 40시간만이 유급근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24시간짜리 교대근무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대기근무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야간휴식시간으로 이뤄지는 근무에서 출동에 대하여는 보너스가 지급된다.



일본에서는 고용주에게 이견을 표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며 전통이다. 소방서와 서장에 대하여는 경의를 표시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것은 소방대원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다.

우리 외국인들에게 개인적인 생활과 연계가 된 이러한 생활습관은 좀처럼 따르기 힘든 것이다. 공식적인 근무시간은 어느 소방서에서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근무일과표는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많다.

소방서에는 어떠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실이 없다. 소방차의 세차장도 없고 소방차를 수리 또는 손질을 할 수 있는 작업실도 없다. 공기호흡기봄베 충전실도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작업은 도쿄에 있는 “Maintenance Shop”이라 불리는 중앙작업장에서 행해진다. 따라서, 소방서는 훈련을 주목적으로 해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아침 8시 반에 다음 근무조를 위한 근무교대행사가 실시된다. 이러한 의식은 군대의 보조들이 소리를 내며 경직된 자세로 근무교대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 뒤에는 그날의 차량점검이 실시된다. 이때는 모든 장비가 꺼내어져 자체적으로 정밀점검을 받는다. 운전원들은 자신의 소방차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차량바퀴를 망치로 두드려 점검해 본다.

점검이 끝나면 장비를 이용한 훈련을 실시하는데, 매우 단조롭고 훈련 중에 변화가 없다. 큰 소리를 내며 훈련하는 이들의 모든 중요한 소방전술은 군사적인 색채가 강하다. 훈련 후 보고식을 갖고 점심식사를 한다.



점심식사는 모든 대원들이 식당에서 해결한다. 소위 도시락이라 불리는 것이 통상적인 식사의 방법이 된다. 이 도시락은 한 식당에서 배달되는 것으로 값이 싸고 좋고 빠르다. 오후에는 또다시 간단한 훈련을 실시하고 22시까지 대기근무에 들어간다. 이들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거나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22시가 되어도 아무도 취침대기에 들어가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자정까지 사무실에서 일을 하거나 휴게실이나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웠다.

흡연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일본에서 화재발생원인의 2위가 담뭍불 부주의 취급이라는 것이다. 대개 술에 만취한 사람들이 침대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잠이 들어 불이 나는 경우라고 한다. 일본에서 대부분의 화재가 방화로 일어난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다. 이 원인은 세계에서 가장 자살율이 높다는 사회적인 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소방공무원이 되는 과정

도쿄에서 소방대원이 된다는 것은 예전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실업율이 5%가 넘는 현실과 관계가 깊다.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취업희망자들이 많다.

소방공무원이 되는 첫걸음은 소방대학(Fire Academy)을 잘 졸업하는 것이다. 입학시험에는 취업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많은 고교졸업생들이 지원하고 있다. 그 때문에 취업희망자들에게 시험을 같이 치르기가 더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은 항상 높은 수준의 체력적인 요구를 감내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더 특별하다 할 것이다. 여성들에게는 남자와는 다른 시험이 필요하지 않을까?

소방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지원자들이 다음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 필기시험, 체력시험, 면접적성시험, 인성검사.

합격을 하면 기초학교에서 소방대원이 되기 위한 훈련이 시작된다. 대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경우는 여기서 9개월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취업희망자들은 1년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첫 해의 탈락율은 약 1~3퍼센트 정도이다. 현재 800여명의 소방학교생들이 기초교육 또는 본격교육을 받고 있다. 학교는 아침 6시에 문을 열어 밤 10시까지 지속된다. 강의는 하루에 8시간의 훈련과 운동으로 구성된다. 이 1년짜리 교육의 마지막에는 도쿄 80개 소방서에서의 실습시간이 있다.

교육생들은 같은 해에 이어지는 구조대원, 기관사, 화학물질전문대원, 구급대원 등의 특수교육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특수교육을 위한 적성검사를 받은 뒤 학교에서 다시 6주간 교육을 받는다.

그곳에서 구조대원은 엘리트로 인식이 되어 있다.

따라서, 지원율이 높고 교육이 까다롭기 때문에 탈락율이 20%를 넘는다. 이러한 과정을 밟기 위해서는 소속 소방관서장의 동의를 있는 신청서를 입교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수료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소속관서에 배치되게 된다.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게다가 승진을 한 사람은 반드시 서를 옮겨야 하는데, 이것은 승진자가 옛 동료들을 추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더 높은 간부들이나 서장은 3~5년마다 소방서를 옮겨야 한다. 그렇게 해서 소방서 지도부는 균일한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도쿄소방에서 정년은 60세이다. 55세이상은 호봉의 승급이 없다.

구조대

도쿄의 모든 구조대의 로고는 베른하르디너 종의 개다. 이것은 구조와 구호를 상징하는 것이다.

모든 구조차량은 하얀 섬광의 심볼을 달고 있는데, 이것은 제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본에서 제비는 빠르고 사람의 친구라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대원들은 오렌지색 옷과 하얀 헬멧을 보면 다른 소방대원들과 구별할 수 있다. 최고이며 신체적으로 적합한 사람만이 이러한 구조대에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훈련은 힘들고 강도가 높다. 이 구조대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40살이다. 구조대는 다음과 같이 나뉘어져 있다.

1. 구조대(기술적인 구조)

자동차사고, 인명구조, 열차사고, 지진과 같은 구조활동에 출동

2. 수난구조대

도쿄의 만과 하천의 수난사고에 출동하며, 타마 비행장에서 이륙하는 헬기와 함께 구조작업을 펼치기도 하고 항만 소방대와 함께 구조작업을 펼친다.

잠수구조대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많은 특수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제트스쿠터, 카메라 달린 소형 유보트, 소방정 등이 그것이다.



3. 산악구조대

산악지역 4개 소방서에서 1987년에 발대된 것으로 알프스산의 구조대처럼 특성화되어 있다. 이들 역시 헬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여름과 겨울의 출동에 대비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텐트, 눈신, 전륜구동 썰매 등이 그것이다.

4. “Fire Rescue Task Force”

1996년 고베 대지진 이후 만들어졌다. 이 지진 때 단순하고 경장비를 갖춘 구조대들이 크고 무거운 잔해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기존의 차를 몰고 장애물이 많은 주차장 같은 도로를 지나 사고지점으로 도착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중장비를 탑재하고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는 이 차량이 만들어졌다. 이 준설기같은 특수차량은 자격있는 사람들이 조작하는 것이다.

도쿄소방대는 국제구조대의 일원으로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지진, 홍수 등의 각종 자연재해 등에 출동을 하는데, 콜롬비아, 터키, 대만에 지원을 나간 적이 있다.



헬기

산불의 화재진압에 있어 공중감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헬기도 일본에서는 도쿄같은 대도시의 소방대에 소속되어 있다. 헬기는 또한 고층건물화재진압에도 출동한다.

2개의 기지에 6대의 헬기가 있다.

슈퍼푸마라는 헬기 2대는 도팽 II라는 화재진압모니터장비 4대를 장착한 것이다.

이들 소방헬기의 출동상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비행, 화재진압, 바닥에 붙은 카메라로 정보수집하는 이런 일들을 구역내에서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
- 구조장비를 위한 운송출동 : 폭풍우로 인해 배가 갈 수 없는 곳에 의사와 의료요원을 수송해야 하는 일
- 소방서를 위한 촬영

1999년 1254회의 출동비행이 있었는데, 이중 화재진압이 94회, 의료사고출동 249회, 구조 69회, 항공감시 13회, 훈련비행 269회, 수송비행 191회이다.

도쿄소방서에서 여성대원의 역할

도쿄소방서에서 여성대원이 채용된 것은 30년이 넘었다. 여성들은 초창기에는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5년전 법률이 개정되면서 일본에서는 모든 분야에 있어 원칙적으로 여성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실상과는 좀 다르게 보인다.

도쿄소방에서 여성의 비율의 5% 정도이지만 다른 지역은 여성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일본여성들은 자체 문화클럽을 가지고 있다. 의장은 토시코 하세가와이다. 그녀는 도쿄의 소방서의 다른 여성대원들과 함께 세계 여성소방대원을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그녀는 도쿄소방에서 17년간 근무를 하였고 소방장의 계급을 갖고 있다.



도쿄소방의 여성 2명은 간부의 계급을 갖고 있다. 그들은 훈련부서와 예방부서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휘하에 30여명을 거느리고 있다.

토시코 하세가와는 덧붙여 말하길; 도쿄소방서에서 여성이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은 남자보다 10배나 어렵다. 특히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내가 도쿄소방서에 들어왔던 17년

전보다 좀 더 어려워졌다.

급여

도쿄에서 소방대원이 받는 초임연봉은 3,000,000엔(3,200만원)이다. 이 봉급은 근무년수와 계급에 따라 증가한다.

화재조사관 같은 소방위는 연봉이 45000유로(6,100만원)이상이다.

더 높은 소방서장같은 간부들은 관사도 제공받는다. 대기근무시간 중 출동에 대하여는 시간당 3000엔(3,200원)의 보너스를 받는다. 주말에 추가로 주는 돈이 전혀 없다.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20에 달하는 일본의 국경일이 될 것이다.

보통 7월과 9월 사이의 여름에는 1주일간 휴가를 갈 수 있지만 5일에 그친다. 나머지는 병가를 위해 비축해 두거나 아니면 단순히 기간이 지나가 버린다.

도쿄소방서는 해마다 학습을 목적으로 네 명의 직원들이 1~2주 동안 외국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로 미국으로 가고 있다.

정신적 안정

일본의 전통에 따라 힘겨운 현장활동을 마치고 정신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를 외부에 알리려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나 최근 1995년 고베 대지진과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사건이후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문제가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많은 출동대원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겪어야만 했다. 그 이후로 소방서내에 정신적인 문제도 상담하고 안정도 취할 수 있는 특별 장소가 마련되었으며 곳에 따라서는 호출을 대기하는 의료진도 있다.

떠나는 날 작별식에서 나는 스위스에서 가져온 헬멧을 주고 일본의 헬멧을 받았다. 그 소방서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진 사진, 기념품, 마크, 핀, 티셔츠 등을 받은 것도 중요한 일이었다.

그리고, 많은 명함을 받은 것도 잊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내가 인사를 나누면서 받은 여러 가지 모양의 명함이 200장이나 되었다. 일본의 예의범절 모두를 지켜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도 않고 외국인이 이런 예의범절을 만나는 일도 그리 많지는 않다.

반면에 옷을 제대로 입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근무일에는 넥타이와 단정한 옷차림으로 출근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근무복을 입을 때는 형식에 맞도록 세심한 주의가 기울여 지게 된다.
소방장비를 다루는 시간에는 하얀 장갑을 끼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나는 매일 팍팍한 일정을 소화해야 했기 때문에 옷을 자주 바꿔 입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다.

서장과의 예비접견에서는 다음날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의 얘기가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마지막 세부일정까지 내가 도착하기전에 내 의도에 맞춰 준비되고 계획되어 있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도쿄 소방청의 지도부에서 조정된 것이었다.

나는 일부러 책임있는 초급간부들에게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려 거의 절망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바람은 다 이뤄질 수 있었다.

나중에 스모경기장과 검도장도 방문하였다. 주말마다 나는 외국인문화클럽의 외국인의 도움으로 도쿄시내를 돌아다니며 뭔가를 보고 배우려 했다.

